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교도소 수형자의 분노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이철호
법무부 진주교도소

이민규*
경상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교도소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탐색해 보는 것이다. 2005년 4월 과 11월 2차례에 걸쳐 J교도소 수형자 25명을 대상으로 분노조절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진행자 2명이 한 조가 되어 프로그램참여집단을 대상으로 1주일에 2번 총12회기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는 자아존중감척도, 상태·특성분노척도(STAXI-K)의 사전사후검사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반복측정다변량분석을 사용하여 자아존중감, 상태분노, 특성분노의 변화를 프로그램 참여집단과 통제집단간 차이 검증하였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의 태도와 만족도를 매 회기마다 평가질문지를 수행하게 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첫째, 프로그램 참여집단의 자아존중감수준은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아졌다. 둘째, 프로그램 참여집단의 상태분노수준은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감소하였다. 셋째, 프로그램 참여집단의 특성분노수준을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감소되지 않았다. 넷째, 매 회기 설문을 통한 분노조절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의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결과의 시사점 및 앞으로의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분노조절, 상태분노, 특성분노, 자아존중감, 교도소 수형자, 교정프로그램

법무부는 수용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교화활동의 새로운 모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형자의 정신교육을 단순한 주입식교육이 아닌 프로그램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시범적인 실시를 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프로그램화한 교육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자와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과거의 시설수용에서 벗어나 심리적인 중재를 통한 교정교화를 시

도하고 있다(신식, 이수경, 이수정, 2006; 이철호, 이민규, 하미옥, 표현정, 지은진, 장혜련, 김혜민, 이미령, 2006).

법무부(2006. 01. 19) 행정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에서 교화프로그램 조항¹⁾을 신설하여 수형자에 대한 심리적인 중재를 위해 상담·심리치료 기타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수용자에 대한 심리적인 중재가 증가할 것으로 예

* 교신저자 : 이민규, (600-701)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전화 : 055) 751-5781, E-mail : rmk92@chol.com

1) 행정법 개정안 제 60조(교화프로그램) ①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교회(교회)·상담·심리치료 기타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상된다. 그리고 외부전문가의 상담 조항²⁾을 개정하여 심리학자와 범죄학자의 교정교화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크게 수형자들의 정신건강을 진단하는 검사도구의 해석과 수형자 유형과 심리적 특성에 관한 주제와(박지선, 이민규, 2003; 이수정, 이윤호, 서진환, 2000; 박은영, 홍상환, 정상문, 김영환, 2002; 이철호, 이민규, 2006 등), 심리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다룬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강선경, 박인숙, 2005; 안경선, 이진영, 김미선, 이상미, 이시래, 서정근, 2000; 이철호, 이민규, 2005; 이철호, 이민규, 하미옥, 표현정, 지은진, 장해련, 김혜민, 이미령, 2006; 신식, 이수경, 이수정, 2006). 한국에서 최근 들어 몇몇 연구자들이 교도소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중재 프로그램 효과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성별, 재범여부, 범죄유형에 따른 수형자의 NEO-PI-R 반응을 연구 한 정유희와 안창일(2000)은 재범집단은 초범집단에 비해 신경증요인과 신경증척도의 분노, 우울, 충동성, 취약성 하위요인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음을 밝혔다. 이는 분노, 충동성 등의 조절이 수형자의 중요한 심리적 특성임을 시사하며, 이런 심리적 특성을 다루어 주기 위한 심리중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부정적 정서 즉, 불안, 우울, 분노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분노관리 프로그램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분노관리중재 프로그램은 학교, 정신건강센터, 교정시설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Digiuseppe & Tafate, 2003). 미국의 경우 과거 10여 년간 정신건강센터와 시민법체계 내에서 분노관리중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특히 교정시설에서 상당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교정시설의 집단프로그램의 10%가 분노관리 프로그램에 해당한다(Lewis, 2000).

분노자체에 대한 치료적인 접근은 Novaco (1975)에 의해 이루어 졌고, 그 이전에는 공격성 또는 폭행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주로 하였다. 그는 인지행동접근에 근거한 스트레스면역훈련을 분노문제를 가진 내담자들에게 실시

하여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한편 Spielberg(1991)는 분노는 적대감과 공격성 발달의 기본적인 단계에서 구별되는 기본적인 정서이고, 상태분노, 특성분노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상태분노(state-anger)는 분노감정의 강도와 사람들이 특별한 시기에 분노를 표현하고 싶은 정도를 측정하고 특성분노는 평소에 분노를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를 측정한다. Welsh와 Gordon(1991)은 특성분노가 공격행동의 중요한 예측인자임을 밝혔다.

분노는 배우자학대, 아동학대, 교통체증짜증, 살인을 포함하는 다양한 공격성 형태를 띤 범죄행동과 연관된다. Dobash와 Dobash(1984)는 부부싸움이 신체적공격성으로 진행되는 확률이 76%임을 밝혔고, Cascardi와 Vivian 및 Meyer(1991)는 신체적 공격을 한 남편의 100%, 아내의 67%는 언어적인 논쟁에서 신체적 공격이 발생했음을 밝혔다. 분노는 동기증가, 목표지향행동 같은 긍정적인 행동을 일으킬 수 있지만 많은 중요한 부정적인 행동 즉, 공격적 행동, 가정폭력, 약물남용을 일으키고, 신체건강문제와도 연관된다(Vecchio & O'Leary, 2004).

분노관리는 수형자들의 재활프로그램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중의 하나이다. 분노관리는 분노와 분노관련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하다(Deffenbacher, Oetting, & Digiuseppe, 2002; Hollin, 2004). 분노는 공격성과 폭행 범죄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수형자들은 높은 분노수준을 나타낸다. 폭력수형자들은 비폭력수형자보다 높은 분노수준을 보인다. 또한, 분노는 시설에 수용된 청소년의 공격성의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이고 시설직원에 대한 신체공격과 연관된다(Howell, K., Day, A., Williamson, P., Bubner, S., Jauncey, S., Parker, A., & Heseltine, K., 2005).

수형자 재활 혹은 심리 중재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주제는 인지 그리고 인지 행동적 접근의 효과성이다. 교정 시설에서 시행된 재범률 감소를 위한 심리중재 프로그램 들은 주로 인지행동치료를 사용하였다(Wilson, Bouffard & Mackenzie, 2005). Friendship, Blut, Erikson, Traver, 및 Thornton(2003)는 영국과 웨일즈의 교정시설에서 인지행동치료를 받은 중저(medium-low)위험 수형자들은 재범률이 14% 감소했고, 중고(medium-high)위험수형자들은 11% 감소했음을 밝혔고, Ross와 Fabiano 및 Ewles

2) 행형법 개정안 제 54조(외부전문가의 상담 등) 수형자의 교화 또는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학·교정학·범죄학·사회학·심리학·의학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교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수형자에 대한 상담·심리치료 또는 생활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1988)는 R&R(Reasoning and Rehabilitation)프로그램 참가자는 18.1%, 삶의 기술 교육을 받은 참가자는 47.5%, 통제집단은 69.5%의 재범율을 나타냄을 밝혔다. 또한 Robinson과 Porporino(2004)는 1989년부터 1994년 사이에 R&R 프로그램에 참가한 4,000명의 캐나다 수형자에 대한 연구에서 출소 후 1년 안에 재범할 확률은 통제집단에서 24.8%였고 프로그램참가집단에서 19.7%였고, 프로그램참가집단이 5%정도 낮았음을 밝혔다.

국내에서도 분노조절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에 대한 연구(임태숙, 1992; 류소영 1995; 강신덕 1997; 임소영, 2000; 천성문, 이영순, 이현림, 2000; 서미화, 2002 등)는 1990년 초기부터 도입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분노조절프로그램(오선민, 1999; 박경택, 2001; 김영순, 2004; 서수균, 권석만 2005; 송미경, 2005)은 많지 않다.

오선민(1999)은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분노 감소에 효과적이고 여성에게 더욱 효과가 크고, 내향성의 대학생, 우울수준이 높은 대학생에게 더욱 효과가 큼을 밝혔다.

박경택(2001)은 교도소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분노조절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여 분노조절훈련을 받은 프로그램 참여집단이 분노조절훈련을 받지 않고 비디오만 본 통제집단보다 공격성, 충동성이 감소하고, 정서적 안정성이 증가했음을 밝혔다. 그 결과, 교도소 내 폭행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분노조절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송미경(2005)은 알코올의존환자들을 대상으로 인지정서행동적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여 참여한 자들의 분노통제수준은 유의하게 높았고 특성분노와 분노표출에서 유의하게 프로그램 참여집단이 낮았음을 밝혔다.

분노조절프로그램의 효과는 자아존중감의 향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기존중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고려를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은 자기평가(self-evaluation)에서 시작되는 정서라고 할 수 있다(홍성열, 2005). 자아존중감은 분노와 직결되는 감정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당하거나 모욕을 당했을 때 자아존중감에 상처가 오면

분노한다. 자아존중감이 손상된 사람은 상처받은 자아가 복구될 수 있도록 혹은 더 이상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방어하고 그 모욕에 대해 보복하고자 하는 충동을 가지고 있다(김영순, 2004).

범죄행위와 자아존중감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 보면, 낮은 자아존중감은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과 관계가 있음을 지지하는 연구가 있다(Oser, 2006).

Anderson과 Anderson(1994)은 낮은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폭력범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Gullone과 Jones 및 Cummins(2000)는 수형자들이 정상적인 학생들과 비교하여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고, 수형자들은 자아존중감에 임상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가짐을 밝혔다. Oser(2006)는 1997에서 1998년 사이에 2개의 중간계호(medium-security)교도소에 있는 수형자에 대한 연구에서 범죄와 누범들이 낮은 자아존중감과 연관됨을 밝혔다. 5요인 성격유형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의 자아존중감수준이 높음을 밝혔다. 교정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비교한 결과 수용기간동안 상담이나 교육에 참가한 사람들이 높은 자아존중감 수준을 나타냄을 밝혔다.

홍성열(2002)은 수형자는 자아가 구속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 기제를 사용하고, 참회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동을 환경을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고, 수형자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사람들은 범죄행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서 범죄를 예방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홍성열, 2005). 수형자라는 사회의 낙인과 장기간 구속된 생활에서 오는 낮은 자존감을 심리중재프로그램을 통하여 높여주고 수형자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주는 일이 요구된다.

이철호와 이민규(2006)는 교도소 수용자들 중 정신건강에 곤란을 느끼는 비율이 36%를 차지하므로 이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심리중재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건강한 집단도 장기간의 수형생활에서 정신건강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건강한 집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의 심리중재프로그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국내의 분노조절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주로 비행청소년 및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도소 성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참여가 수형자의 상태분노와 특성분노수준을 낮추어 주는지, 그리고 자아존중감 수준을 높여주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방 법

참여자

2005년 4월 1차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은 11명이고 2005년 11월 2차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은 14명으로 총 25명의 수형자³⁾들이 분노조절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통제집단으로 1차에 11명, 2차에 14명을 선정하였다. 2차에 선정한 통제집단 중 1명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하여 13명이 선정되었다. 프로그램참여집단 25명의 연령은 25세에서 62세(M=41.32, SD=10.88)까지 분포하고, 통제집단 24명의 연령은 24에서 53세(M=39.69, SD=9.05)까지 분포하였다. 30대, 기혼인 사람이 가장 많았다.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설계

2(참여집단, 통제집단)×2(프로그램전, 프로그램후 : 시점)의 혼합설계이다.

진행자 및 진행절차

연구자를 포함하여 모두 5명으로, 심리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다. 진행자 2명이 한 조를 이루어 공동진행을 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자 변인을 줄이기 위해 매회기마다 프로그램 진행 전에 모여서 충분한 연습을 하고 프로그램 진행 후에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 진행은 J교도소 대강당 혹은 종교관에서 이루어졌다. 1회기에 50분으로 하여 주 2회 총 12회기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과 후에 심호흡, 근육이완과 심상훈련을 실시하였고 매회기에 생각해 볼거리를 주고

3) “수형자”라 함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자와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자를 말하고, “미결수용자”라 함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써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말하고, “수용자”함은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기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를 말한다(행형법 제1조).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징

변인	범주	사례(비율, %)		
		전체집단 (n=49)	참여집단 (n=25)	통제집단 (n=24)
나이	20대	9(18.2)	5(20.0)	4(16.7)
	30대	16(32.6)	8(32.0)	8(33.3)
	40대	14(28.5)	6(24.0)	8(33.3)
	50대이상	10(20.1)	6(24.0)	4(16.7)
결혼	미혼	19(38.8)	10(40.0)	9(37.5)
	기혼	21(42.9)	11(44.0)	10(41.7)
	이혼	7(14.3)	4(16.0)	3(12.5)
	기타	2(4.1)	0	2(8.3)
죄명	살인	12(24.5)	7(28.0)	5(20.8)
	강도	9(18.4)	4(16.0)	5(20.8)
	성폭력	12(24.5)	6(24.0)	6(25.0)
	폭력 기타	3(6.1) 13(26.5)	2(8.0) 6(24.0)	1(4.2) 7(29.2)
형기	3년이하	11(22.4)	5(20.0)	6(25.0)
	5년이하	9(18.4)	4(16.0)	5(20.8)
	7년미만	7(14.3)	4(16.0)	3(12.5)
	7년이상	22(44.9)	12(48.0)	10(41.7)
수형 기간	1년미만	3(6.1)	1(4.0)	2(8.3)
	2년미만	18(36.7)	11(44.0)	7(29.2)
	3년미만	10(20.4)	5(20.0)	5(20.8)
	5년미만	7(14.3)	4(16.0)	3(12.5)
5년이상	11(22.4)	4(16.0)	7(29.2)	
잔여 형기	1년미만	10(20.4)	4(16.0)	6(25.0)
	2년미만	6(12.2)	3(12.0)	3(12.5)
	3년미만	9(18.4)	3(12.0)	6(25.0)
	5년미만	2(4.1)	2(8.0)	0
5년이상	22(44.9)	13(52.0)	9(37.5)	

다음회기에 이것에 대해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진 후에 새로운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회기와 12회기에 자아존중감척도와 상태·특성분노척도(STAXI-K)를 수형자들에게 실시하였다.

도구

분노조절프로그램구성

본 연구에서 실시된 분노조절프로그램은 Bush와 Glick 및 Taymans(1997)의 통합된 인지행동변화프로그램인 Thinking for a Change(T4C), 강신덕(1997), 국립서울정신병원(1998), 장현갑, 윤병수, 서현정(1997), 천성문(1999),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5), 이영(2004)이 사용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교도소 수형자의 분노와 자이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표 2. 프로그램의 내용

회기	제 목	내 용
1회기	프로그램소개 및 자기소개	-자기소개 -프로그램 목적과 규칙만들기
2회기	나의 감정 알아차리기 와 이완훈련	-감정 알아보고 신체언어로 표현하기 -감정전달하기 게임 -심호흡연습
3회기	분노의 인지적 이해와 이완훈련	-분노상황의 ABC이해하기 -나를 화나게 만들 수 있는 잘못된 생각들 -심호흡, 점진적 근육이완훈련
4회기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건강한 생각으로 바꾸기	-자기부정적 사고를 긍정적사고로 바꾸는 연습 -이완훈련과 심상훈련
5회기	분노패턴 발견하기	-자신의 분노표현양식과 분노진정방법 이해하기 -분노상황에서 상황선택하여 역할극하기
6회기	결과 미리생각하기	-결과를 미리 생각하여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연습 -현금지급기와 두 가지 상황연극하기
7회기	상대방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깊게 듣기	-올바른 경청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연습하기 -경청하는 것과 경청하지 않는 것을 역할극하기
8회기	공감하기	-올바른 공감기법을 사용하여 관계를 향상시키는 연습 -공감나누기 역할연극
9회기	건강한 방법으로 분노표현하기	-나-메시지 사용하여 주장하기 연습
10회기	건강한 방법으로 분노표현하기-2	-건강하게 요청하기와 거절하기를 통해 주장하기 연습 -요청하기와 거절하기 역할극
11회기	전체복습	
12회기	프로그램정리 및 평가	

분노조절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한 인지-정서-행동의 통합적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프로그램소개 및 자기소개하기, 나의 감정 알아차리기와 이완훈련,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건강한 생각으로 바꾸기, 분노형태 발견하기, 결과 미리생각하기, 상대방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듣기, 공감하기, 건강한 방법으로 분노표현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총12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1회기 진행시간은 50분으로 하였다. 회기별 프로그램 제목과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상태·특성분노척도(STAXI-K)

상태분노와 특성분노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1997)가 개발한 한국판 STAX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4점의 4점 Likert척도이다.

자이존중감척도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검사를 전병재(1974)가 한국어로 번안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1점에서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이고, 부정적문항 5문항은 반대로 채점하

표 3. 자이존중감, 특성분노, 상태분노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 인	참 여 집 단(n=25)		통 제 집 단(n=24)	
	프로그램전M(SD)	프로그램후M(SD)	프로그램전M(SD)	프로그램후M(SD)
자이존중감	26.96(4.61)	28.88(4.43)	28.00(3.69)	27.08(5.17)
특성분노	19.68(5.21)	19.88(4.77)	20.42(2.83)	19.96(4.99)
상태분노	14.36(5.87)	11.20(2.90)	12.46(3.44)	13.96(6.30)

표 4. 자아존중감의 반복측정 다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	F	유의도
집단	1.753	1	1.753	.11	.746
오차	776.298	47	16.517		
시점	12.327	1	12.327	.816	.371
시점×집단	98.531	1	98.531	6.525	.014
오차	709.673	47	15.099		

표 5. 상태분노의 반복측정 다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	F	유의도
집단	2.247	1	2.247	.150	.701
오차	705.498	47	15.011		
시점	33.742	1	33.742	.987	.326
시점×집단	265.905	1	265.905	7.775	.008
오차	1607.360	47	35.199		

였다. 수범위는 10점에서 4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료분석

모든 자료분석은 SPSS 11.0 for Windows를 사용하였다. 모든 종속측정치(상태분노, 특성분노, 자아존중감)를 프로그램 전·후와 집단으로 구분하여 반복측정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상호작용이 유의한 경우 단순주효과검증을 집단별 대응표본검증으로 하였다.

결 과

자아존중감, 특성분노, 상태분노의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분노조절프로그램효과를 자아존중감, 특성분노, 상태분노의 변화로 알아보았다. 반복측정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여 상호작용이 유의한 경우 각 집단에서 프로그램 전후의 심리적 측정치의 변화를 대응표본검증으로 알아보았다.

상태분노

분노조절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상태분노의 반복측정 다변량분석을 한 결과,시점(프로그램전후)×집단의 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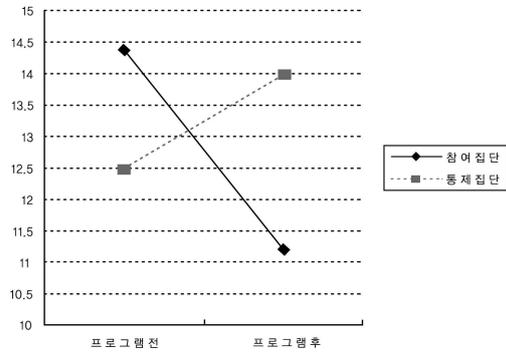


그림 1. 프로그램전-후 상태분노의 변화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표 5에 제시하였다. 이원상호작용의 원천을 알아보기 위해서 대응표본검증을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참여집단의 경우 프로그램 전에 비해 프로그램 후에 상태분노가 감소하였고, $t=3.51, p=.005$, 통제집단에서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t=1.12, p=.273$. 집단별 프로그램전후의 변화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특성분노

분노조절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특성분노의 반복측정 다변량분석을 한 결과, 집단의 주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F(1,47)=.134, p=.716$, 시점의 주효과도 유의하지 않았고, $F(1,47)=.036, p=.850$, 그리고 시점(프로그램전후)×집단의 이원상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았다, $F(1,47)=.235, p=.680$.

자아존중감

분노조절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자아존중감의 반복측정 다변량분석을 한결과, 시점(프로그램전후)×집단의 이원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표 4에 제시하였다. 이원상호작용의 원천을 알아보기 위해서 대응표본검증을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참여집단의 경우 프로그램 전에 비해 프로그램 후에 자아존중감이 상승하였고, $t=3.51, p=.002$, 통제집단에서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t=.94, p=.359$. 집단별 프로그램전후의 변화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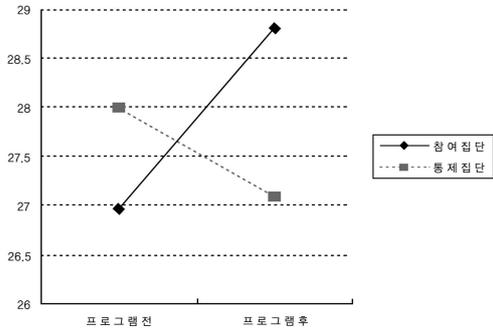


그림 2. 프로그램 전-후 자이존증감의 변화

프로그램에 효과를 보인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프로그램 참여자들 가운데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수형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서 자이존증감이 향상된 참여자는 나이가 어리고 미혼인 수형자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죄명에서는 강도, 형기에서는 7년 이상의 장기 수형자, 수형기간은 5년 이상 수용생활을 한 수형자, 잔여형기는 2년 미만으로 출소일이 가까운 수형자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서 상태분노가 향상된 수형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나이에서는 40대 수형자, 미혼인 수형자, 강도와 기타범죄자, 형기는 3년 이하인 수형자, 5년 이상 수형생활을 한 수형자, 잔여형기가 2년 미만인 수형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참여자 회기평가 결과

매 회기가 끝난 후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의 태도나 만족도를 점검하기 위해 참여자에게 평가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① 문항은 “오늘 모임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였습니까?”, ② 문항은 “오늘 한 프로그램이 흥미가 있었습니까?”이고, ③ 문항은 “오늘 한 프로그램이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이고, ④ 문항은 “오늘 모임에 얼마나 만족하였습니까?”이고, ⑤ 문항은 “다음 모임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이고, ⑥ 문항은 “다음 모임에 얼마나 잘 참여할 것 같습니까?”이고, ⑦ 문항은 “오늘 모임에서 느낀 점은?”이었다. 1점(전혀...없음)에서 5점(매우...함)까지 평정하게 하였다. 5번 문항(난이도)을 제외하고 대체로 4점 이상의 높은 점수

표 6. 프로그램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범주	자이존증감 향상된 참여자 (n=18)	상태분노 감소된 참여자 (n=13)
나이	20대	5(27.8/100)*	3(23.1/60.0)**
	30대	6(33.3/75.0)	4(30.8/50.0)
	40대	4(22.3/66.7)	4(30.8/66.7)
	50대이상	3(16.8/50.0)	2(15.4/33.3)
결혼	미혼	10(55.6/100)	6(46.2/60.0)
	기혼	6(33.3/54.5)	6(46.2/54.5)
	이혼	2(11.1/50.0)	1(7.7/25.0)
	기타	0	0
죄명	살인	5(27.8/71.4)	2(15.4/28.5)
	강도	4(22.2/100)	3(23.1/75.0)
	성폭력	4(22.2/66.7)	3(23.1/50.0)
	폭력	1(5.6/50.0)	0
	기타	4(22.2/66.7)	5(38.5/83.3)
형기	3년 이하	3(16.7/60.0)	3(23.1/60.0)
	5년 이하	3(16.7/75.0)	2(15.4/50.0)
	7년 미만	2(11.1/50.0)	1(7.7/25.0)
	7년 이상	10(55.6/83.3)	7(53.8/58.3)
수형기간	1년 미만	1(5.6/100)	1(7.7/100)
	2년 미만	8(44.4/72.7)	4(30.8/36.4)
	3년 미만	4(22.2/80.0)	3(23.1/60.0)
	5년 미만	1(5.6/25.0)	1(7.7/25.0)
	5년 이상	4(22.2/100)	4(30.8/100)
잔여형기	1년 미만	2(11.1/50.0)	2(15.4/50.0)
	2년 미만	3(16.7/100)	2(15.4/66.7)
	3년 미만	2(11.1/66.7)	1(7.7/33.3)
	5년 미만	1(5.6/50.0)	1(7.7/50.0)
	5년 이상	10(55.6/69.0)	7(53.8/53.8)

* (a/b) a는 자이존증감이 향상된 참여자 중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b는 20대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서 자이존증감이 향상된 비율이다

** (a/b) a는 상태분노가 향상된 참여자 중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b는 20대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서 상태분노가 향상된 비율이다

를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참가자들의 열의를 알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회기평가표에서 ⑦ 문항은 각 회기에 본인이 느낀 점을 적는 문항과 각 진행자들의 행동 관찰표를 분석하였다. 1회기에는 “어렵고 당황스럽다.”, “아직은 모르겠으나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된다.”고 평하였고, 마지막 회기에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와 행동들을 다

시 생각하게 되었다.”, “반복적인 생활에서 변화를 주고 기다려줬고 마음이 조금 편안해 졌다”, “학생들에게 필요 한 것 같다. 어릴 때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여기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웠다.”,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점들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 실천할 때 새로운 점을 발견했다.”고 하여 수형자들의 생각이 회기를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논 의

본 프로그램은 인지-정서-행동을 통합적으로 다룬 프로그램이고, 특성분노, 상태분노, 자아존중감을 분노조절프로그램 전과 후에 실시하고 반복측정 다변량검증을 실시하였다. 분노조절프로그램 전후에 각 집단의 프로그램 전후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검증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매 회기마다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의 태도나 만족도를 점검하기 위해 평가 질문지를 통해 수형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프로그램 참여집단은 통제집단이 비해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더 높아졌다. 이는 교정시설 수용 중에 상담이나 교육에 참가한 수형자들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냄을 밝힌 Oser(2006)의 연구와 일치한다. 분노조절프로그램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공감하기 등의 역할극을 해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한 것이 수형자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프로그램참여집단은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상태분노가 유의하게 낮아졌다. 그러나 특성분노는 유의하지 않았다. 분노의 인지적 이해에서 분노가 발생하는 것은 상황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생각이나 신념이 어떠한가에 따라 다름을 파악하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분노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도록 하고 행동의 결과를 미리 생각해 보도록 하여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수정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노력이 수형자들의 상태분노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특성분노는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변하는 상태분노와는 달리 비교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분노유

발경향이기에 때문에 단기간의 훈련으로 변화하기 힘들므로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고 본다. 특성분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 상담, 사회지지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매 회기마다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의 태도나 만족도를 평가하는 5점 척도 질문지에서 평균 4점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참여자가 회기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태도와 만족도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실험자의 요구에 맞추려는 경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화를 위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인구통계학적특성에 따른 심리적특성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프로그램참여 후 프로그램에서 나이가 어리고 미혼인 수형자, 수형기간이 길고 잔여형기가 짧은 수형자들에게서 효과가 좋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연구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제언하자면, 첫째,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는 참가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장기효과를 알아보기 못했다.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사후추적조사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J교도소 초범 수형자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앞으로 더 많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다른 교정시설에 있는 성인수형자와 누범수형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프로그램효과를 재검증하고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남자 수형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여자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는 공장수형자(4)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작업을 하지 않고 거실생활을 하는 미지정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여섯째,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했고 횡단적 연구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인과론적 결론을 내리는데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추후연구에서 면접법등 자기보고식 질문지 이외의 행동관찰 등 다른 자료수집방법과 종단적 연구방법을 사용해서 본 연구의 결과가 반복검증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형자들이 형기를 마치면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4) 수형자중 정역(노동)을 하는 수형자가 있고 정역을 하지 않고 거실에서 생활하는 수형자가 있는데 공장수형자와 미지정 수형자로 편의상 분류하고 있다.

야 하고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재범을 할 때 사회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교정교화 활동이 단순한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심리적 중재에 의한 다양한 심리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수형자들의 감정조절 능력의 향상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심리적 자원의 축적에 본 연구결과의 시사적인 함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선경, 박인숙 (2005). 공격성 감소와 사회재적응 향상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교정연구*, 제27호, 57-77.
- 강신덕 (1997). 비행청소년분노조절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립서울정신병원 (1998). 분노조절프로그램. 미발표.
- 김영순 (2004). 매맞는 아내를 위한 분노조절프로그램의 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소영 (1995). 비행청소년을 위한 분노대처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택 (2001). 분노조절훈련프로그램이 교도소 수용자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영, 홍상황, 정상문, 김영환 (2002). 수형자의 PAI프로파일과 범법행위 예언지표.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1(4), 941-955.
- 박지선, 이민규 (2003). 정신감정이 의뢰된 범죄자들의 MMPI프로파일 양상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2(1), 203-214.
- 서미화 (2002). 아동을 위한 분노조절프로그램의효과.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수균, 권석만(2005). 분노조절인지행동프로그램을 통한 이중매개인지매개모델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4(3), 495-510.
- 송미경 (2005). 알코올의존환자를 위한 인지정서행동적 분노조절 프로그램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67-381.
- 신식, 이수경, 이수정 (2006).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인지행동 교정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교정연구* 제 31호, 89-115.
- 안경선, 이진영, 김미선, 이상미, 이시래, 서정근 (2000). 원예치료를 통한 여성재소자들의 사회성 및 대인관계 변화연구. *한국식물 · 인간 · 환경학회지* 3(4), 17-24.
- 오선민 (1999). 사회적 기술 훈련이 대학생의 분노감소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정, 이윤호, 서진환 (2000). MMPI점수로 본 교도소 수형자들의 정신건강문제 실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19, 43-63.
- 이 영 (2004). 청소년을 위한 분노조절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철호, 이민규 (2005). 교도소 수용자를 위한 분노조절프로그램효과.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40-41.
- 이철호, 이민규 (2006). 교도소 수형자의 성격특성과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20(1), 77-90.
- 이철호, 이민규, 하미옥, 표현정, 지은진, 장혜련, 김혜민, 이미령 (2006). 성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심리학회연차학술대회*, 54-255.
- 임소영 (2000). 비행청소년을 위한 분노조절훈련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태숙 (1992). 분노통제훈련이 비행청소년의 분노 및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현갑, 윤병수, 서현정 (1997). 분노조절훈련 프로그램. 영남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학생연구*, 제28호, 193-269.
- 진경구, 한덕용, 이장호 (1997). 한국판 STAXI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2(1), 60-78.
- 진병재 (1974). 자아개념 측정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
- 정유희, 안창일 (2004). 성별, 재범여부, 범죄유형에 따른 수형자의 NEO-PI-R반응.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3(3), 725-740.
- 천성문, 이영순, 이현림 (2000). 신경증적 비행청소년의 분노조절을 위한 인지행동적 집단치료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2(1), 53-82.
-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5). 분노조절프로그램.

- 홍성열(2002). 범죄인의 4가지 공통심리. 교정연구, 제17호, 271-288.
- 홍성열(2005). 범죄심리학. 학지사.
- Anderson, D. B. (1981). The relationship between correction education and parole success. *Journal of Offender Counseling, Services, and Rehabilitation*, 5, 13-25.
- Anderson, C. A., & Anderson, D. C. (1994). Ambient temperature and violent crime : Test of the linear and curvilinear hypothe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1-97.
- Bush, J., Glick, B., & Taymans, J. (1997) *Thinking for a Change : Integrated Cognitive Behavior Change Program*. The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NIC).
- Cascardi, M., Vivian, D., & Meyer, S. (1991). Context and attributions for marital violence in discordant couples. *Poster presented at 25th Annual Convention of the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New York*.
- Deffenbacher, J. L., Oetting, E. R., & DiGiuseppe, R. A. (2002). Principle of empirically supported interventions applied to anger management.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0, 262-280.
- DiGiuseppe, R. & Tafrate, R. C. (2003). Anger treatment for adults :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 Science and Practice*, 10, 70-84.
- Dobash, R. E., & Dobash, R. P. (1984). The nature and antecedent of violent event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24, 269-288.
- Forgays, D. G., Forgays, D. K., & Spielgerber, C, D. (1997). Factor structure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9(3), 497-507.
- Friendship, C., Blud, L., Erikson, M., Traver, R., & Thornton, D. (2003). Cognitive-behavioural treatment for imprisoned offenders : An evaluation of HM Prison Service's cognitive skills programmes.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8, 103-114.
- Gullone, E., Jones, T., & Cummins, R. (2000). Coping style and prison experience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 male prisoners.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7(1), 170-181.
- Hazaleus, S. L., & Deffenbacher, J. L. (1986). Relaxation and cognitive treatments of ange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222-226.
- Hollin, C. R. (2004). *The essential Handbook of Offender Assessment and Treatment*. John Wiley & Sons Ltd.
- Howell, K., Day, A., Williamson, P., Bubner, S., Jauncey, S., Parker, A., & Heseltine, K. (2005). Brief anger management programs with offenders : outcomes and predictors of change. *The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 Psychology*, 16(2), 296-311.
- Lewis, D. M. (2000). Responding to a violent incident : physical restraint or anger management as therapeutic interventions.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9, 57-63.
- Novaco, R. (1975). *Anger control :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n experimental treatment*. Lexington, MA : Lexington Books.
- Oser, C. B. (2006). The Criminal Offending Self-Esteem Nexus : Which Version of the self-esteem theory is supported. *The Prison Journal*, 86, 344-363.
- Ross, R. R., Fabiano, E. A., & Ewles C. D. (1988). Reasoning and Rehabili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32, 29-36.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ce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Robinson, D., & Porporino, F. J. (2004). Programming in cognitive skills : the reasoning and rehabilitation programme. In C. Hollin(Ed.), *The Essential Handbook of Offender Assessment and Treatment*, 63-77. John Wiley & Sons Ltd.
- Vecchio, T. D., & O'Leary, K. D. (2004). Effective of anger treatments for specific anger problems :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 15-34.

Welsh, W. N., & Gordon, A. (1991). Cognitive mediators of aggression : Test of a causal model.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8, 125-145.

Wilson, D. B., Bouffard, L. A., & Mackenzie, D. L. (2005).

A Quantitative review of structured, group-oriented, cognitive-behavior programs for offende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2(2), 172-204.

The Effect of Anger Management Program for Offenders on Anger and Self-esteem

Chul Ho Lee
Jinju Correctional Institution

Minkyu Rhe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velop the anger management program and to verify the effect of the program. 24 offenders participated in this anger management program and 25 offenders(the control group members) are also included in this study. The change in self-esteem and anger score from pre-treatment to post-treatment was compared for participants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e self-report measures were chosen for this study,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STAXI-K, Spielberger, 1988), Self-Esteem Scale(Rosenberg, 1965). To analyse these observed differences between the treatment and control groups, repeated measures analyses of variance were carried out with time of measurement(pre vs. post) as a within-subjects factor and group(treatment vs. control) as a between-subjects factor. Two leaders leded participants group during twice a week for 6 weeks(total 12 session). Also, to check the participant's attitudes and satisfaction toward this program, questionnaires were carried out each sessio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did show that prisoners receiving the anger management program(the treatment participant group) showed significantly greater improvement in state anger than the control group. Second, the results of trait-anger showed non significance. Third, the results did show that prisoners receiving the anger management program(the treatment participant group) showed significantly greater improvement in self-esteem than the control group. Forth, participant's responses to this program were reported positively. Finally,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y are discussed.

Keywords : anger-control; state anger; trait anger; self-esteem; offenders

원고접수 : 2006년 12월 8일
심사통과 : 2007년 1월 2일